

1. 기럿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법궤(13 장)
 - a. 법궤(언약궤) 옮기는 일은 왕과 백성이 ‘한 마음’이 된 후, 첫 번째 행한 일
 - i. 법궤가 기럿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이유(참조, 삼상 4-7 장)
 - ii.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옳은 일?
 1.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온 백성이 선하게 여김(4)
 2. 주의 뜻이라면, 모든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옮겨 보이는 법(참조, 마 18:15-20)
 3. 그러므로,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선히 여겨 행한 이 일은 하나님의 뜻(2,4)
 - b. 주의 일의 특징(5-8)
 - i. 다윗이 제시하고,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, 하나님은 인준(주의 일의 원리)
 - ii.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온 백성이 춤과 노래로 기뻐하며 열정에 사로잡힘
 1. 단순히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, 흥분과 기쁨으로 행한 것
 2. 주의 일을 할 때, 억지로 하는가? 아니면 열정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행하는가?
 - c. 언약궤의 거룩성(9-13)
 - i. 웃사의 죽음으로 당황하며 긴장하게 된 백성들
 - ii. 다윗의 분노: “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데, 백성을 죽이시다니...”
 - iii.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분노케 한 다윗과 웃사의 행동
 1. 해답을 위한 예비질문
 - a. 웃사는 법궤가 땅에 떨어져 더럽혀질까봐 염려해 붙잡았던 것?
 - b. 그렇다면, 웃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죄악된 인간임을 망각한 것
 2.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다윗과 웃사의 행동
 - a. 다윗의 잘못: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을 소에 실어 옮기려 한 일
 - b. 웃사의 잘못: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어기고 법궤를 만진 일
 - iv. 웃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
 1. 그 일이 선하고 기쁨과 열정으로 한다 해도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일은 죄악된 것
 2.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주의 일은 자기 감성에 도취된 자기 중심적인 일에 불과
 - d. 언약궤의 선함(14)
 - i. 언약궤가 3 개월 간 머문 오벧에돔의 집에 주신 축복은 언약궤의 선하심을 제시
 - ii. 가드 사람 오벧에돔은 누구이며, 왜 그 집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?(참조, 삼상 5:8)
 1. 빼앗긴 법궤가 불레셋의 가드지역에 있을 때, 그 곳에 내려진 재앙을 듣거나 본 자
 2. 이방인인 그가 그의 집에 옮겨진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면...
 - iii.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을 성별 되어 대할 때에 항상 복과 선하심으로 베푸시는 분
2.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(15:1-15)
 - a.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달은 다윗(2)
 - i. 레위인들(노래하는 자, 수금, 비파, 문지키는 자 등)을 모아 몸을 성결케 함(4-14)
 - ii. 여호와와 규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도록 명령(15)
 - b. 언약궤를 옮겨올 때의 모습 (15:16-16:3)
 - i.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드려진 축제의 찬양과 경배(16-22)
 - ii.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찬양과 실행(26, “하나님이...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”)
 - iii. 교훈: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를 엄매이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것

3. 언약궤의 의미(16:4-36)
 - a. 언약궤(15:25,26,28,29)는 ‘하나님의 언약’을 의미
 - i.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관계로 맺은 언약들
 1. 아담과의 언약: 아들(‘형상’, 창 5:3)과 종(‘땅을 다스림, 창 2:15-17)으로 맺은 언약
 2. 시내산 언약: 아들(‘양자’, 출 4:22,23)과 종(‘제사장’, (출 19:6)으로 맺은 언약
 - ii.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 백성과 관계를 맺으심
 1. 아들과의 관계로 언약을 맺으심은 경배와 순종을 요구하기 위한 것
 2. 종으로의 관계로 언약을 맺으심은 충성(규레이행)을 요구하기 위한 것
 - iii. 이때 언약의 이행의 결과는 축복이나, 불이행의 결과는 죽음 또는 저주
 1. 구약의 언약들은 X와의 새 언약을 통해 성취됨으로써 백성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제공
 2. 참조, ‘노아의 방주’와 ‘모세를 담은 궤’는 ‘하나님의 구원과 축복’을 상징/언약궤의 모형
 - b. 언약궤는 ‘하나님의 임재와 은혜’를 의미(7-36)
 - i.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(말씀, 언약, 도우심 등)을 찬양(8-22)
 - ii. 하나님의 위대하심(23-27)과 그의 통치(28-33)를 찬양
 - iii.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‘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은혜’를 의미
4. 언약궤에 감추어진 약속(16:37-43)
 - a. 시온산에 있는 성막과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
 - i. 아삽으로 찬양을 위해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함(37)
 - ii. 사독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게 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막 앞에 머물러 있게 함(39-40)
 - b. 늘 함께 있었던 법궤와 제단이 분리가 된 사실이 주는 교훈
 - i. 주의 은혜는 언약궤에 의해 제공되고, 인간의 응답은 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림으로 나타남
 - ii. 법궤와 제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, 은혜는 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것
 - iii. 이들의 분리는 은혜가 인간의 어떤 행위나 헌신에 제한되지 않고 앞서간다는 것을 교훈
 - iv. 즉, 하나님의 ‘구원과 축복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
 - c. 어느 한 장소(예, 성전)에 국한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궤
 - i.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다고 생각(시 132:13-14, 87:2, 요 4:20)
 - ii. 모세때부터 다윗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으로 이동되어진 법궤
 1. 언약궤는 40년간 광야에 머물며 행진할 때마다 이동(실제 법궤는 이동식으로 고안)
 2. 가나안 정착 후 길갈(수 4:19), 베델(20:26-27) 실로(삿 18:1, 삼상 4:3-4)로 이동
 3.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, 바벨론 5 도시로 옮겨지며 이동
 4. 그 후, 벧세메스 - 기랏여아림 - 오벧에돔 - 예루살렘으로 이동
 - iii.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러한 장소들에서도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
 - iv. ∴ 주의 은혜가 어느 특정한 장소(기도원, 제단 앞, 교회당 등)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
 - d. 역대기 시대는 성전(제단)은 새로 지었으나 하나님의 법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
 - i. 이때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
 1. 주의 은혜는 언약궤에 제한 되지 않으며,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주어진다
 2.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디서든 주님과 만나 교제하며 섬기는 삶을 가지라는 것
 - ii. 교회 안과 사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차이는 이러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아 비롯된 것